

전문가 요청

안전과 윤리경영



이 영 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질문 1 안전과 윤리, 어떤 관계가 있나요?

윤리와 안전은 별개의 요소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이고, 윤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리와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등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는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인 한 원인입니다. 기업이 이윤 때문에 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를 한다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경영, 윤리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는 물론 구성원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보편화 될 때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기업들도 안전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우리 일터에서는 매일 5명이 일 하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다치는 사람도 하루 2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안전을 문화로 확산해야 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일하기 전에 위험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활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문화는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감대가 생기고, 이를 통해 생각이 바뀌고, 실천이 축적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문화가 됩니다.

안전을 문화로 확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더디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안전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절차를 준수하고 원칙을 지키는 일. 작은 것 같지만 일터와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향 & 소식

:: 국 내

BSI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컨퍼런스 개최

BSI가 주최하는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컨퍼런스가 9월 15일 주한영국대사관에서 개최되었다. 'BSI 반부패 원탁회의: UK Bribery Act, FCPA, 청탁금지법과 BS 10500'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약 7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전 세계 반부패법 확대 동향과 표준의 역할, 부패 관련 법적 제제 및 대응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BSI측은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될 반부패경영시스템 시범사업 및 교육, 정기 세미나 등을 통해 반부패경영 확산과 시스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국적기업에 세금 매기는 '구글세' 빠르면 2017년 국내도입

정보기술(IT) 등 다국적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소위 '구글세'가 빠르면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될 전망이다. 관계 기관은 내년 8월까지 계획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해당 기업들에 대한 실제 세금부과는 이듬해 발생하는 매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 구글, 스타벅스, 루이비통 등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로열티, 자문료, 이자 등을 통해 해외 본사로 자본을 이전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9161443107865>

국내기업 21곳,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편입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결과, 글로벌 2,495개 평가대상 기업 중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등 국내 기업 21곳을 포함한 전 세계 317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에 편입됐다. 한편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과 향상을 보인 산업은 전자부품, 장비 산업 및 운수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유 및 가스 산업과 개인용품 산업 평가점은 각각 -6.8%, -6.0%씩 하락하여 상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www.etnews.com/20150910000332>

:: 해 외

제70차 유엔총회 개막...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채택

제70차 유엔총회가 9월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됐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0개국 정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였으며, 회의에서는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개발목표인 '유엔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채택한다. SDGs는 세계인의 가난 탈출과 배고픔 해소, 건강한 삶 보장, 양질의 교육 보장, 양성평등 달성, 위생적인 생활보장 등 17개의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회원국들 간의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이 확정되어 2016년 3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50916004400340&input=1196m>

일본, 사외이사 10명 중 1명이 여성

일본에서 여성의 사외이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인재 소개 업체 '프로넷'에 따르면,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1,900개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 수가 343명으로 조사되어 전체 사외이사 3,584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6%를 차지했다. 변호사인 여성 사외이사가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수이거나 정부 기관 출신인 이들도 6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외부감사에서 여성 채용이 증가하여 여성 외부 감사의 숫자는 186명으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51&newsid=01656406609498480&DCD=A00805&OutLnkChk=Y>

포춘, 'Change the World' 리스트 발표

미국의 경제지 포춘(Fortune)이 'Change the world' 리스트를 발표했다. 'Change the World'는 복잡한 사회 환경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거대한 혁신을 일으킨 상위 50개 기업들을 소개했다. 'Change the World' 기업 선별은 기업 혁신 참여도, 측정 가능한 사회적 임팩트, 기업 수익과 경쟁적 이점에 대한 공유 가치 활동의 기여, 그리고 비즈니스 전반에 공유가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4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리스트의 주요 선두 기업들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시멕스, Waste Management 등이 선정되었다.

출처: <http://srwire.co.kr/archives/15710>

기업윤리 브리프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행사
브리핑

제1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개최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전KDN, 사학연금, 전력거래소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반부패 자율협력 실천연대를 구성하고, 청렴의지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나주시와 손잡고 '제1회 빛가람 청렴문화제'를 9월 14일부터 4일간 개최하였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개최된 이번 청렴문화제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한 연극 '남 탓' 공연과 청렴영화 상영, 청렴문화 전시회, 초등학교 청렴부채 만들기,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 참여형 행사를 선보였으며,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청렴'이라는 화두를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접목해 모두가 공감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진영 부위원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던 청렴정책을 지역주민과 교감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리포트

독일의 윤리경영 제도와 정책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도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는 기업 풍토를 일구어 왔다. 기업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하에 독일정부는 1976년 세계 최초로 '공동결정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옮길 정도로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파트너 의식과 이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정착되어 있다 ('독일의 기업윤리', 김성국).

공동결정법

1976년 제정된 독일의 공동결정법은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감독이사회에 노사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거의 대부분의 독일주식회사가 공동결정법에 의해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를 갖추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공동결정제도는 노사가 협력하여야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경영진과 근로자 관계를 협력관계로 이끄는 기능을 한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감독기관에 의하여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통제를 가하여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보가 경영진과 근로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다.

독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German Corporate Governance Code)

2001년 9월 독일 법무장관은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ssion)에 독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2002년 2월 정부위원회는 독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하였다. 이 모범규준은 독일 상장기업의 경영 및 감독에 대한 현행 법령상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좋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국제적 · 국내적

으로 인정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이 적용 대상이나, 비상장기업도 본 모범규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해상충 및 기업정보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노력

독일정부는 윤리경영의 보급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왔다. 2004년 독일정부는 재무보고개혁법(BilReG)에 따라 상법을 개정하여 연례 사업보고서에 비재무적 성과지표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2005년에는 연금법을 개정해 연금펀드 및 기금을 투자할 때 투자 대상 기업의 윤리 · 사회 · 환경적 요소를 고려했는지를 공시하게 했다.

- CSR Action Plan

독일정부는 2009년 노동부 산하에 CSR 포럼을 설립했다.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은 국가 차원의 CSR 지원정책을 자문하며, 2010년 10월 'CSR 액션플랜(Action Plan)' 도입을 결정했다. 도덕적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CSR을 국가 차원의 계획으로 끌어올린 'CSR 액션플랜'은 세부 계획으로 기업과 공공 행정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립,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CSR 활동의 가시화 및 신뢰성 향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CSR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우수 기업에 'CSR-made in Germany'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제품의 품질 인증으로 자리 잡게 된 슬로건 'Made in Germany'를 CSR과 연계하여 'CSR · Made in Germany'로 확대 보급하고 있다. 우수 CSR 기업에 'CSR-Made in Germany' 마크를 부여하여 공공 입찰 및 구매과정에서 우대하고 있다.

윤리경영 스터디

세대간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차이

직장 내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각 세대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윤리적 가치에 기반을 둔 기업문화 설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윤리경영 연구기관인 IBE의 'Business Ethics across Generations'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는 세대간 윤리경영에 대한 태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조직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 내 세대 구성과 윤리경영 정책

영국의 노동인구에서 65~69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3%에서 2013년 20%로 상승했다.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 이미 미국 노동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 세계의 노동인구의 50%를 밀레니엄 세대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조직 내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은 하나의 윤리경영 정책을 채택하기 보다는, 각 세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보다는 기존 세대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천천히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윤리경영에 대한 성향

2013년 Ethics Resource Center는 2011년에 시행했던 National Business Ethics Survey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세대간 윤리의식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했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세대와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Ethics officer 제도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세대의 경우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했을 때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모른 척 하겠다'라는 응답비율이 12%에 불과했다(밀레니엄세대 : 35%). 또한 전통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공식적인 윤리 프로그램에 다른 세대보다 높은 반응도를 보였고 기업의 윤리기준 이해와 시스템, 절차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젊은 세대의 경우 업무 일선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더 자주 목격하지만, 이를 신고하는 데에는 소극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회사의 윤리담당 부서가 제공하는 훈련, 신고라인 등을 사용하는 빈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아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면에서 계속됩니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화학업계

우리나라는 화학제품 출하액 기준 세계 6위의 화학제품 생산국이며, 화학산업은 국가경제의 대표적인 기간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화학산업은 복잡한 장치산업의 특성을 띄고 있으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잠재위험성이 크다. 사고 발생 시 근로자와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안전과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슈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화학물질은 유독성과 폭발성으로 인해 그 취급에 있어 매우 큰 주의를 요구한다. 많은 화학기업들이 안전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에 밀려 작업장 안전이 등한시되기도 하며 결국 이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로 이어져 인명피해 및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의 경우 유독물질 대량 취급 업소가 3,000여 곳이나 되고, 울산·여천·대산 등 전국의 화학단지에는 40년이 넘는 노후 설비가 즐비한 것이 현실이다.

사례 |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2년 구미4공단에서는 화물차 탱크로리에서 야외저장탱크로 불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밸브가 열려 12톤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직원 7명 중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불산이라는 가스의 정체를 모른 채 열린 밸브를 찾기 위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또한, 초기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주민피해가 1만 2천명, 농작물 고사가 212헥타르, 차량 부식 피해가 1,958대, 가축피해가 3,943마리에 달했다.



이슈 2 'Responsible Care Program'

'Responsible Care'는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전,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화학업체들이 환경·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화학산업의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다. 1990년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에서 Responsible Care의 확산을 위해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를 결성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2013년 기준 57개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소속 화학업체들은 2009년 기준 세계 화학산업 매출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정식회원국으로 가입이 승인 되었으며 현재 국내 65개의 주요 화학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이슈 3 화학업체들의 친환경 노력

화학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대기 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높인다. 이러한 오염들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업체들은 친환경 설비운용, 환경정화활동 등과 같이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화학산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야로, 제품 생산 과정의 직접적인 탄소 배출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의 소모를 통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에 따라 화학업체는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이 경감된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사례 | 글로벌 화학기업의 환경을 위한 노력

미국의 화학기업인 다우케미칼(Dow Chemical)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딱지를 떼고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우 케미칼은 1995년 미국 텍사스주 시드리프트에 있는 공장에 하수처리 설비를 확충해야 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4,000만 달러를 들여 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어야 했지만, 다우케미칼은 하수 처리장 대신 공장 옆에 습지를 만들었다. 해당 습지는 모든 환경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하루에 약 1,900만 리터의 물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생 동식물에 서식지를 제공했으며 습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은 140만 달러에 불과했다. 다우케미칼은 습지 프로젝트를 통해 2억 8,200만 달러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3면에서 이어집니다.

각 세대에 윤리경영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

▷ 전통세대(1922-1945년 사이 출생) 및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사이 출생)

- 회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원칙을 강조
- 경영진 등 윗선을 통한 메시지 전달
- 윤리프로그램이 잘 확립되어 있으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
- 전통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 마련
-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보고할 경우, 신고자를 보호하고 조사에 대해 정보제공

▷ X-세대(1965-1982년 사이 출생)

- 회사의 윤리기준과 조언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윤리문제에 대한 상담가를 배치하고 이를 홍보

▷ 밀레니엄 세대(1983-2004년 사이 출생)

- 회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노력을 친근한 방법으로 소통
- 밀레니엄 세대와 가까운 동료, 중간관리자를 통해 메시지 전달
- 사내 윤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
- 밀레니엄 세대가 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과 기준에 참여하도록 기회부여
-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보고할 경우, 그 조사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신고자와 공유

세대간 차이 극복을 위한 사례

▷ National Grid

자사의 기업문화가 40~60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젊은 세대 확보에 나섰다. 젊은 세대가 윤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착안하여 자사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홍보에 투자하였다. 각 학교에서 과학, 공학, 수학 및 기술 커리어에 대한 교육 활동을 펼침으로써 윤리적 노력을 증명하여 젊은 세대의 회사지원을 이끌어 냈다.

▷ Diageo

임직원들과 회사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사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Yammer'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사내 각 세대의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각 세대에 적합한 소통방법을 사용하여 회사의 목표에 대한 각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 Sodexo UK & Ireland

사내의 세대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대간 대화를 촉진하는 게임, 월급 명세서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20-30대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프로젝트 이후 사내 설문조사 결과, 회사가 사내 세대간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응답자가 78%에 달했다.

감성 메시지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일,
안전경영과 윤리경영의 공통분모입니다.”

윤리경영 워크숍 및 청렴정책 전수과정 안내

기업에 공공부문의 우수한 반부패정책을 소개하고, 윤리경영 관계자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 기업윤리 워크숍 및 청렴정책 전수과정」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국민권익위원회
- 일시** 2015년 11월 19일(목)
- 장소** 서울역 대회의실
- 대상** 기업 윤리경영 및 대관 업무 담당자, 학계, 연구단체 관계자 등
* 50명 선착순 마감

문의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
(gukmin@korea.kr, 044-200-7166, 7167)



One Point Lesson

Q 요즘 안전경영과 관련하여 ‘OHSAS 18001’에 관한 언급을 보았는데,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A OHSAS는 직장 안전보건 경영시스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종전의 안전관리자 중심의 안전활동을 최고 경영자와 모든 조직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 전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예방하려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원의 안전, 보건과 건강을 지킴으로써 기업의 이윤창출과 조직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OHSAS 18001은 표준규격에 의한 인증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LRQA를 비롯한 인증기관과 영국표준협회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의해 1999년 수립된 인증심사 규격이며, ISO 9001, ISO 14001과의 병용성을 고려해 제정되었습니다.

참고 » OHSAS 18001 관련 인증

BS 8800

BS 8800은 안전보건 가이드 규격으로 영국표준협회(BSI)에서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영국 안전보건청의 연구결과, 모든 사고의 70% 이상이 관리적 조치(Management Action)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표준수립에 착수하여 1996년 최초로 발행되었습니다.

10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2015 공유가치창출 전문가 양성과정

사회 혁신형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최초의 공유 가치창출 전문가 양성과정.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인식확산을 통하여 공유 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사회공헌연구원
- 일시 : 2015년 10월 1일(월) ~ 11월 26일(목)
- 장소 :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

2015 EHS Management Forum

환경, 보건, 안전 분야에 있어서 최대 규모의 포럼이며, 베스트프랙티스 공유, 강연 등을 통해 사내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

- 주최 : NAEM
- 일시 : 2015년 10월 14일(수) ~ 15(목)
- 장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제6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UN반부패협약*과 관련, 이행 현황 공유와 점검체계 개선을 위해 개최.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성보)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의 주요 협약 이행 진전사항을 소개할 예정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러시아 정부
- 일시 : 2015년 11월 2일(월) ~ 6일(금)
- 장소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참석 : 177개 당사국 및 비비준국 대표,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약 1,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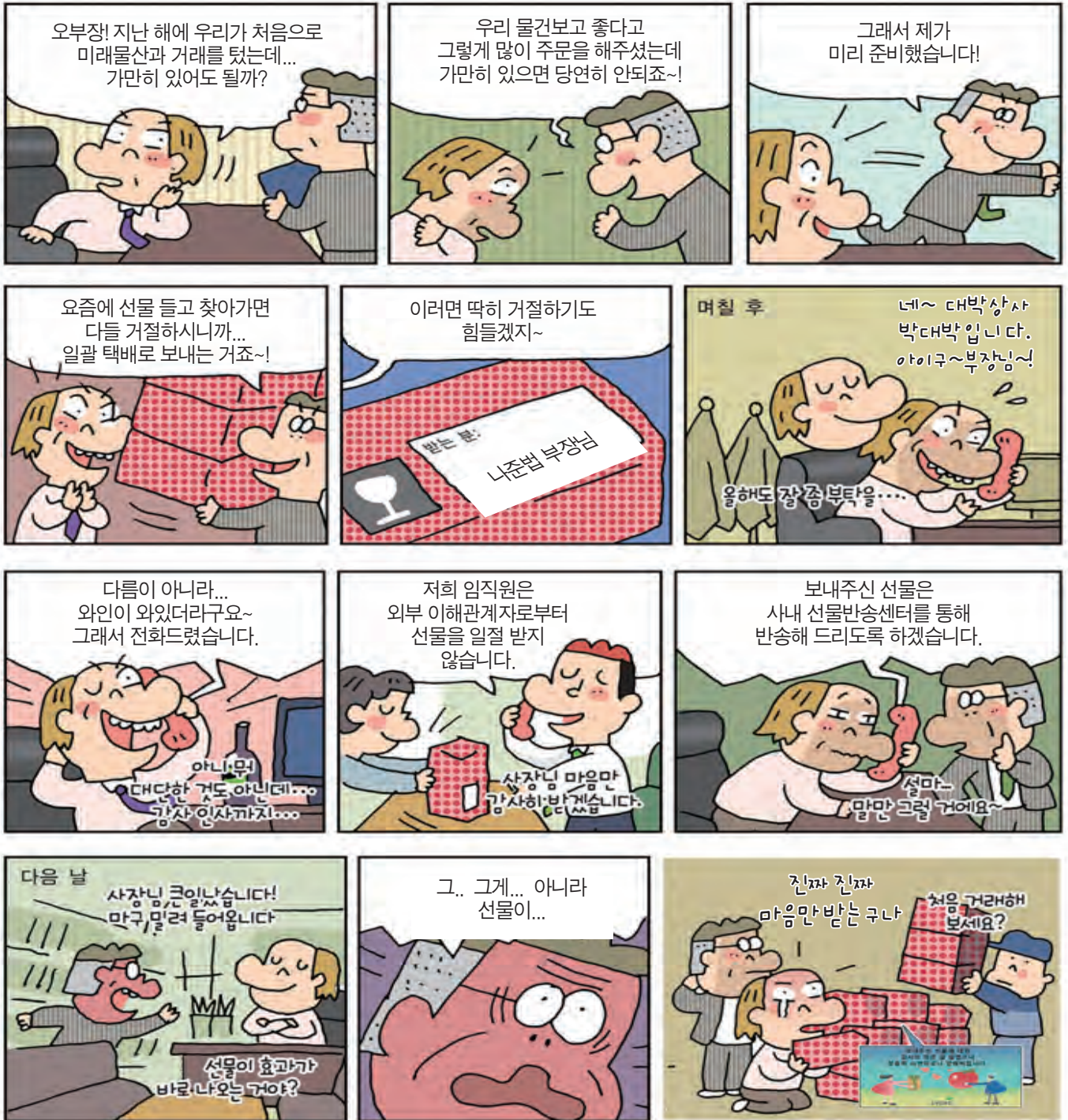
* UN반부패협약('03.10월)

산재해 있는 반부패 국제협약을 UN총회가 통합하여 만든 최초의 국제규범(한국은 '08.2월 비준)



Yes 준비! Ok 윤리!

자꾸 돌아와요~!



자료제공 : 교보생명

맛 취 보 세 요

다음 보기 중 직장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인증으로, 안전관리자 중심의 안전활동을 최고 경영자와 모든 조직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활동으로 전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예방하려는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 1) OHSAS 18001
- 2) ISO 9001
- 3) ISO 14001
- 4) ISO 26000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커피 2잔)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3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gukmin@korea.kr)

※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모바일 상품권 수신처)를 보내주세요(25일까지).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권은경님, 최원영님, 전혜원님, 장유미님, 김성준님입니다.

※ 보내주신 연락처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